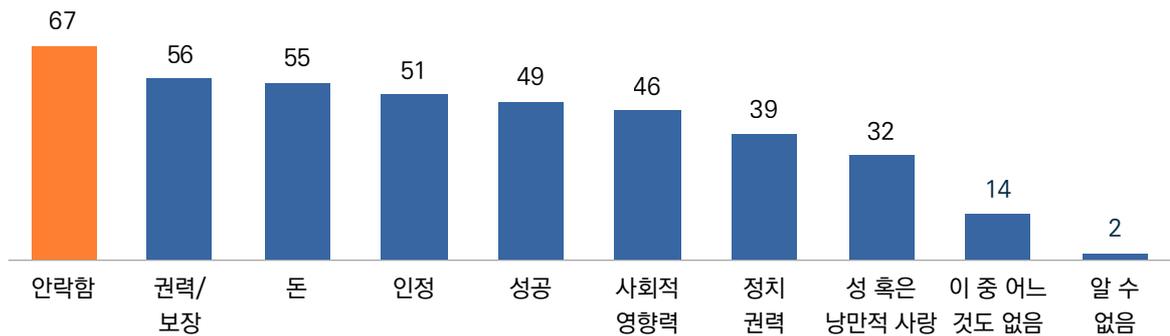




미국 목회자 3명 중 2명(67%), '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안락함(Comfort)'

- ▶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에서 미국 개신교 목회자에게 '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'에 대해 물었다. 그 결과 목회자 3명 중 2명(67%)은 '안락함'을 꼽았고, 다음으로 '권력 또는 미래에 대한 보장' 56%, '돈' 55%, '(타인의) 인정' 51%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▶ 미국의 가장 많은 교회가 1차원적 세상의 안락함을 최고의 우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, 두번째 우상은 사람들이 이미 가진 안락함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미래에 대한 보장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'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' (중복응답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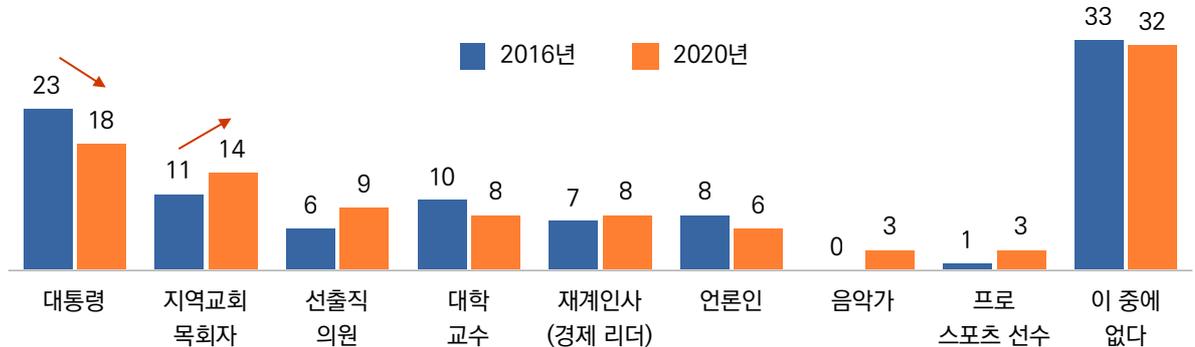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: Lifeway research, Paster' Views on Modern Day Idols, 2022.08.09.(미국인 개신교 목회자 1,000명 대상, 전화조사, 2021.09.01.~30)

◎ 미국인, '사회적 이슈에 대한 건강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직업, '목회자'가 2위로 꼽혀'

- ▶ 미국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미국 국민 1,005명을 대상으로 '사회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건강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직업으로 '대통령(1위, 18%)'에 이어 '지역교회 목회자'가 2위(14%)로 선정됐다.
- ▶ 2016년 9~10월 조사와 비교했을 때 '대통령'을 꼽은 미국인은 23%에서 18%로 줄어든 반면, '지역교회 목회자'는 11%에서 14%로 3%p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. 한국과는 무척 대비되는 조사 결과이다.
- ▶ 반면, '이중에 없다'는 응답은 미국 국민 3명 중 1명꼴 이었다

[그림]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건강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직업 (상위 8위, %)



*자료 출처: Lifeway research, American View on Healthy Conversations, 2022.07.26.(미국인 1,005명 대상, 온라인조사, 2021.09.03.~14)